

보도	2025.3.19.(수) 11:00	배포	2025.3.19.(수)	
담당부서	은행감독국 금융지주감독팀	책임자	국 장	김형원 (02-3145-8020)
		담당자	팀 장	윤석우 (02-3145-8215)
	은행검사1국 검사3팀	책임자	국 장	김남태 (02-3145-7050)
		담당자	팀 장	라성하 (02-3145-7080)

최근 실시한 우리금융지주 대상 경영실태평가 결과 설명

- 최근 금융감독원은 '24년에 실시한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당해 금융회사에 통보하였습니다. 이와 관련한 보도 및 문의가 많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1. 그간 경영실태평가 경과

- 금융감독원은 '24년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으며, 현재 동 검사 결과를 정리 중입니다.
- 다만, 우리금융지주가 '25.1월 동양·ABL 생명에 대한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를 신청함에 따라,
 - 당해 금융회사의 최신 경영현황을 반영한 객관적·합리적 심사*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경영실태평가 부분을 분리하여 우선 처리하였으며,
 - * 직전 경영실태평가는 '21년 실시
 - 이를 위해 그간 다수의 검사·심사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 처리한 결과, 3.18. 동 평가결과를 우리금융지주에 통보하였습니다.

2. 경영실태평가 내용

□ **(경영실태평가 제도)** 금융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해 감독당국이 그룹 전체 차원에서 금융지주회사 등의 합리적이고 객관적 현황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.

- 평가대상은 크게 3개 평가부분이며, 세부적으로는 11개 세부 평가부분(中) 및 50개 평가항목(小)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

- **리스크 관리 부문(R):** 그룹 리스크를 인식·측정·감시·통제하는 이사회·경영진의 리스크 관리능력 적정성과 그룹 내부통제 적정성 등 중심
- **재무상태 부문(F):** 그룹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리스크의 수준을 지탱하는 재무 자원의 질에 주목하여 그룹 전체의 재무건실도 중심
- **잠재적 충격 부문(I):** 금융지주회사 및 여타 자회사 등의 현황이 주력 자회사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중심으로 평가

- 평가결과는 1~5등급의 5단계 및 등급별로 다시 3단계(+,0,-)로 구분하여, 총 15등급 체계의 종합평가등급으로 나타냅니다.

□ **(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)** '24년 우리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 결과, 그룹 전체의 내부통제, 리스크관리 측면 등에서 다음과 같은 미흡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.

< 주요 미흡사항 >

- 리스크관리 부문(R)에서 자회사 M&A 등 주요 경영의사결정 시 사전 검토 미흡, 자회사 리스크한도 관리 미흡, 주요 자회사의 거액·반복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 미흡 등
- 잠재적 충격 부문(I)에서 자회사등에 대한 업무지원 및 통할 미흡, 그룹내 내부거래 관리 미흡 등

- 이에 따라 직전 경영실태평가에 대비하여 세부 평가항목 중 상향 조정된 항목보다 하향조정된 항목이 다수 발생하였으며,
 - 이는 여타 금융지주와 비교할 경우에도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.
- 참고로 상기 평가결과는 경영실태평가 시 등급심의회 개최, 이후 제재심의회부의 심사조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.

3.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승인 심사 계획

- '25.1.15.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를 의뢰받아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
 - 법령상 편입승인 요건의 확인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관 검사국에 경영실태평가 등급 등 사실조회를 실시하였으며,
 - 우리금융지주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 추가자료를 제출 받아 심사하고 있습니다.
- 조속한 시일 내에 금융감독원의 심사의견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.